1. 도덕적 기준이 높아진 사례 소개

최근 스타벅스 본사가 스타벅스 코리아에서 손을 떼고 우리나라의 신세계와 싱가포르 투자청이 각각 67.5%와 32.5%만큼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 소식을 듣고 스타벅스 본사가 더 이상 품질관리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제품의 질에 대한 걱정을 하는 소비자들도 있었지만, 스타벅스의 기업 문화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스타벅스는 장애인이나 경력 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어 다른 카페보다도 스타벅스를 이용했는데,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이러한 문화가 사라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기업의 상품만이 평가 기준이 되던 때와는 달리 이제 소비자들은 기업의 휴머니티 공감자산 점수까지 고려한다.

2. 나의 휴머니티 공감자산 점수는?

‘휴머니티 공감자산’이라는 말을 수업 시간에 처음 들어봐서 아직도 낯설고 이런 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끄럽지만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는 것도 항상 내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진정한 공감이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있어야 할 텐데 가장 결정적인 그것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낮은 점수일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내가 타인에게 따뜻한 말을 해 준 적도 있고, 진심으로 공감한 적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그건 다 나의 상태가 괜찮았을 때였다. 최근의 나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스스로가 생각해도 불안한 상태이고, 그래서 요즘의 기억을 살펴보면 가족을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공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휴머니티 공감자산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3. 인간에 대한 나의 관심은?

그 전에는 개인적인 내가 선호하는 것, 선호하지 않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었다. 그러나 올해 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의 졸업발표회를 본 이후 비로소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다. 그 졸업발표회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황에 맞게 새로 생성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나 스스로가 먼저 카카오톡 이모티콘에 관심이 많았기도 했지만, 카카오톡 이모티콘 디자인으로 버는 수익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었는데, 신기술을 사용해 사람들이 원하는 상품을 personalize하자는 아이디어가 아주 창의적이어서 충격을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시야를 확장해 모두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안목이 인상적이었고 이 발표회를 본 이후 새로운 것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좋아할까?’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생각한다.